

산책자 노트

독서 강박과 책의 무덤 시리즈

작년 두 번째 개인전 '책의 무덤'을 준비하면서, 2010년부터 12년까지 진행해 온 110장의 동명의 펜드로잉시리즈 '책의 무덤'이 현재 작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쯤 펜드로잉시리즈를 묶을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고 싶었다. '책의 무덤' 시리즈는 내게 독서 강박이 있었을 때 나온 작업이다. 독서 강박은 시간에 대한 강박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때 시간을 물질화시킬 수 있는 것은 책과 작업이라고 느꼈다. 서재에 꽂혀 있고, 쌓여있는 캔버스들을 보면, 내 시간이 물질이 되어있고, 단순히 소비하지 않고 보존했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사라졌다.

독서의 첫 집착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내 작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2008년 '목탄화' 시리즈는 과분하게? 잘 나온 작업이었고, 주변에서 이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때까지 나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어떻게 그리면 멋있는 그림이 나올까만 고민하던 때였다. 나는 그 작업을 설명하기 힘들었고, 그림을 언어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에 모순을 느꼈다. 한편 내가 이 그림을 그린 명확한 이유를 스스로도 찾지 못하는 것도 알았다. 이 그림들을 그린 이유를 찾기 위해 찾아낸 단어들은 너무 피상적이고 추상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 시키기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없었다. 독서란 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그림을 설명하려면 나를 둘러싼 세상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의 무덤'이라는 제목은 2013년쯤 독서 강박에서 벗어날 때 나온 제목이다. 그 당시 너무 되는 일이 없었고, 모든 일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비관적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불안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세상과 사회, 과거를 탓했다. 나는 작업과 책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렇기에 집착했었다. 하지만 쌓여있는 책과 그림들은 비관적인 일상에 더한 무게로 다가왔다. 내가 보존해온 시간이 불안한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된다는 생각과 함께 독서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마 이게 '책의 무덤'이라는 제목을 짓는 데 영향을 끼쳤을 것 같다.

독서 강박으로부터 나온 펜드로잉시리즈 '책의 무덤'은 낙서하듯이 그림이 쌓여 나왔다.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아무런 고민, 계획 없이 A5 종이 안에서 완성하고 확장했다. 책을 통해 바라본 풍경, 시간, 세계들이 손끝으로 나온 느낌이었다. 그렇게 나온 110장의 드로잉들을 몇 년에 걸쳐

분류하고 제목을 짓고, 래퍼런스의 출처를 찾는 등,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를 고민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이 책자로 만들어지길 원했다. 이 작업들의 시간은 전시장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닌 책장 안에서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설득력을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

회화적 표현

여기서부터 내가 언급하는 '회화적 표현'이란 구상과 비구상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구체적인 의미 없이 조형적이거나 감정적인 선을 조율하기 위해 사용되는 붓질, 흔히 추상적 표현이라고 쓰는 것을 포괄하는 것이다.

이전에 작업할 때 우선순위에 있던 것은 서사를 전하는 것이었다. 이야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전하기 위해 그리는 과정에 점점 제약이 많아졌고, 그중 회화적 표현이 그 제약에 속했다. 지극히 개인적인 비유지만, 나는 그림을 문장으로 생각했다. 이미지 요소들을 주어, 목적어, 서술어처럼 명확한 구성으로 만들려 했고, 회화적 표현은 문장의 내용보다 외형에 신경 쓰는 미사여구로 보였다.

점점 많아진 제약과 함께 이미지가 너무 언어화하기 쉽고, 단순한 구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최근 종이에서 판넬로 재료를 바꿔 작업 하다 보니, 다층의 레이어와 러프한 선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기금과 레지던시 입주로 제작비와 공간적 제약이 없어져, 다양한 방식을 부담 없이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의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제약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다. 앞으로의 작업들은 회화적 표현과 함께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과연 내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제약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려고 한다.

아나키즘과 긍정

나의 이십 대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었다. 축적하고 쌓아온 지식은 부유하는 단어들로 느껴졌고, 현실 속 사람들은 욕심이라는 단순한 감정 속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만들어 냈다. 뭔가 허술하고 설득력 없는 세상이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게 이상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결국 이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언제나

지 바라보고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다.

올해 결국 바뀌었다. 사람들이 다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갔던 집회들은 어느새 문화재 형식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처럼 변했고, 내게 추상적으로 느껴졌던 단어들이 점점 의미를 되찾아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일종의 안도감과 성취감으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태도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다. 재미있게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 '긍정'이라는 단어였다. 이전까지 나는 한국에서 소비되는 긍정이라는 것을 혐오했다. 책임감 없고 굉장히 강박적인 모습으로 소비되었고, 어떤 경우 일종의 샤머니즘 적인 형태도 취하였다. 그 얇고 무책임한 상징이 갑자기 생각나게 되는 데는 내 주변환경과 사회변화와 관련이 있었을까? 그리고 보면 나는 항상 부정에서 시작하려 했고, 내가 바라본 세상은 부정의 변증법이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비판, 부정으로 출발하는 이론들. 어쩌면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 속에서 부조리한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며 실망을 피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아나키즘에 대한 책들을 읽고 있었다. 사실 아나키즘에 끌린 것은 양비론보다는 책임감 있는 회의라고 생각했고, 단순히 아나키즘 이미지에 끌린 것도 있다. 책을 읽을수록, 이것은 너무 이상적인 생각으로 이뤄졌고, 인간의 의식에 대한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별로 동의할 수는 없었지만, 그 지점은 재미있었다. 아나키즘을 정리할 수 있는 문장은 결국 '인간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새로운 종류의 부정을 찾기 위해 본 책에서 오히려 '긍정'을 보게 되서 얼떨떨했다. 그리고 긍정으로 이러한 다양한 층위와 무게를 만들어 내는 것에 흥미를 느꼈다.

산책자(Flâneur) 노트 전시와 드로잉북

이러한 이유로 나는 처음 기획했던 '책의 무덤' 드로잉시리즈만으로 전시하기 힘들게 되었다. 과거의 작업과 앞으로의 작업은 태도와 개념적으로 변할 것 같았고, 그것이 '책의 무덤' 시리즈만으로 설명되긴 부족하단 생각이 들었다. 내 작업은 주변 환경과 사회적 요소에 반응하는 결과물이었는데, 앞으로의 작업은 단순히 이러한 요소로 맥을 이을 것 같지 않아서였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필요했고, 그것이 '산책자(Flâneur)'였다. '산책자'라는 개념은 사실 모든 작가와 도시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쩌면 너무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7년 동안 분류하고 정리한 이 드로잉들이 나의 '산책자'를 구체화 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드로잉 북 제목은 책의 무덤에서 산책자 노트로 변경되었다. 조금 더 유쾌한 면을 살리고 싶었고

드로잉들의 온도와 무게를 맞추기 위해, 17년에 그린 드로잉들은 소재나 표현적인 부분에서 더 가볍게 완성했다. 책의 무덤 시리즈 110장에 80장의 드로잉을 추가했고 각각의 주제와 소재, 구성에 맞추어 산책, 엉터리 화가, 이상한 이야기, 무거운 나무, 바보들의 왕관, 유령의 얼굴, 오리엔탈이 되는 법, 책의 무덤 총 8가지 카테고리 400페이지로 된 드로잉북을 만들었다. 이미지에 대한 것들, 민담, 설화 등 서사를 재해석하고 정리하는 작업들, 내가 바라보고 겪고 상상하는 사회에 대한 모습, 작가로서 스스로의 삶을 의심하고 고민하며 기록한 드로잉들로 이루어졌다.

전시는 펜드로잉 시리즈와 그것을 엮은 드로잉북을 볼 수 있는 3층 전시장과 프리뷰 형식으로 앞으로 진행할 작업들을 볼 수 있는 2층 전시장으로 구성하였다.

산책자 노트는 7년 동안 내가 작업을 하면서, 바라보는 세상과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을 고민하고 되새기면서 기록한 결과물이다. 같은 카테고리 속에서도 10년의 작업과 17년의 작업이 같이 있고, 거기에는 같은 주제를 다른 무게와 태도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내가 있다.

글. 우정수